

공동활동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양적 분석¹

이선이² · 나은영³ · 김영진⁴ · 김완석⁴ · 김혜숙⁴ · 이종한⁵ · 조성을⁶

²아주대학교 사회학과 · ³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⁴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⁵대구대학교 심리학과 · ⁶아주대학교 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자발적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얻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 하에, 9개의 공동활동 집단을 사례로 선정하여 각 집단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사례로는 동창회, 향우회, 상호회, 평신도회, 부녀회 등 전형적인 형태의 집단들과, 복합공동체(두레마을), 환경운동모임(한살림), 공동육아협동조합, PC동호회 등의 비전형적인 집단들이 선정되었으며, 응답자 수는 집단별로 33~58명(총 406명)이었다. 회원들의 가입경로, 참여도, 공동활동과 관련된 주관적 · 정서적 경험, 공동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집단의 조직적 특성 및 활동내용, 구성원들간의 관계, 다른 모임활동에의 참여 등이 조사되었으며, 집단별 특성을 비교 ·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우리 나라의 공동활동집단 형성과정에 흔히 나타나는 연고주의적 특성이 비전형적인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공동활동은 사회적 가치보다는 인간관계의 확장, 자기발전, 실질적 문제해결 등 개인적 가치를 지향하는 면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공동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심리적인 성질의 것이며, 실질적 문제해결은 이를 목적으로 생겨난 모임을 제외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모임활동은 가정 및 직장생활과 상충적 관계에 있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사람들은 친족이나 마을 등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적 기반을 거의 상실하였다. 그 대신 현대인들은 다양한 사회조직에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Gordon & Babchuk, 1959; Sills, 1968; Smith, 1975). 현대인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사회조직으로는 가족 및 친족집단, 친구, 이웃, 직장, 학교, 정치조직, 그리고 종교단체를 포함한 자발적 공동활동조직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도 특히 자발적 공동활동조직에의 참여가 가장 특징적인 생활양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Triandis et al., 1988). 과거에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비교적 단위적인 공동체가 삶의 기반을 이루었으나, 근대에 이르러 사회가 분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다원화되고, 또한 사람들이 개입하는 사회 조직들도 이처럼 다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Wirth, 1964).

우리 나라의 경우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발적 사회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인문 · 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김혜숙·최진호(1997)의 전국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람들의 82.8%가 친목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종교모임 등의 공동활동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공동활동조직은 서구 사회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공동활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직에의 참여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폐쇄적이고, 일차관계 중심적이고, 학연과 혈연·지연 등의 귀속주의적 연줄망의 중요성이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김선엽, 1993; 김진균, 1983; 이종한, 1992). 다시 말해서, 서구사회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개인들이 개별적인 정체감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회조직을 형성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를 기반으로 조직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며, 그 조직에의 소속감과 집단정체감을 바탕으로 개인들의 정체감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종종 집단이기주의라는 폐해를 낳기 때문이다(이종한, 1994).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자발적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특별히 제기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공동활동조직의 형성에는 연고주의적 특성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2) 전형적인 공동활동조직과 근래에 새로 출현하는 미래형 공동활동조직 간에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 (3) 사람들은 공동활동을 통해 어떤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으며,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가 각기 어떠한 비중으로 추구되고 있는가? (4) 공동활동조직은 가정이나 직장 등 다른 사회조직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9개 유형의 공동활동 집단을 사례로 선정하여 각 집단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로 선정된 9개 집단에는 전형적인 형태의 집단뿐 아니라 근래에 출현한 미래형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우리 나라의 모든 공동활동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구체적 사례의 비교는 일종의 간편법적 전략(heuristic strategies)으로서, 공동활동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 여러 단서들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방 법

공동활동 유형 및 사례집단의 선정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활동 집단이 존재하나, 모든 공동활동 집단을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이에 맞는 공동활동 유형을 선정하였고, 그 다음, 각 유형에 해당하는 집단을 연구자의 임의대로 선택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동활동 유형의 선정은 비자발성, 정치성, 영리성을 배제의 기준으로, 그리고 보편성, 미래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우선, 관주도적이거나 강제적인 공동생활 유형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발적인 사회조직에 해당하는 사례로 국한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가족이나 친족집단이나 직장도 제외하였다. 공동활동의 표면적인 목적이 정치성을 띄거나 영리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유형도 배제하였다. 한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즉 보편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다소 전형적인 공동활동 유형과, 근래에 출현하여 시도되고 있는 공동활동 유형으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미래에 활성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형들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비교적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공동활동유형으로는 동창회, 향우회, 농촌 상조회, 종교단체의 평신도회, 부녀회가, 그리고 근래에 출현한 다소 비전형적이지만 미래형의 공동활동 유형으로는 거주와 생산활동을 공유하는 복합공동체, 먹거리를 매개로 하여 환경보존운동을 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아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 그리고 PC통신을 매개로 하는 PC통신 동호회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전형적인 형태의 공동활동은 김혜숙·최진호(1997)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친목활동유형은 등산모임이었는데,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 사례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또한 미래형 공동생활 유형으로 동호인 주거촌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소속된 회원의 수가 너무 작아서(n=5)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집단은 부산중·고등학교의 기 동창회, 서울의 해남향우회, 안성군의 농촌 상조회, 수원외 카톨릭평신도회, 수원 및 진주시의 부녀회, 두레마을, 대구의 한살림공동체, 서울의 공동육아협동조합, 그리고 나우누리의 PC통신 직장인 동호회였다.

설문조사

설문지는 각 공동활동 집단의 핵심 인물과의 면접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 외에, 가입경로, 참여정도, 공헌도, 의견반영정도 등 개인의 참여행동 실태와, 공동활동의 사회적 가치, 중요도, 만족도 등 공동활동과 관련된 주관적·정서적 경험과, 조직의 특성이나 활동내용, 구성원들 간의 관계 등, 다른 사회조직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녕감 척도와 낙관주의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1997년 3월에 집단별로 실시하였다. 집단별 응답자수는 33~58명이며, 총 응답자 수는 406명이다.

결 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공동활동 집단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및 개인소득수준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30~40대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 연령층이 공동활동 집단에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범주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김혜숙·최진호, 1997). 교육수준별 분포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2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직업별 분포에서는 경영/관리/자유/전문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고,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공동활동 집단의 조직적 특성

공동활동 집단의 조직적 특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집단형성이 기존 연고에 의존하는 정도이다. 혈연, 지연, 학연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연고 기반인데, 응답자들의 가입경로에 관한 문항을 통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 측면은 구성원들의 참여도이다. 참여도는 모임의 빈도와 참여 정도, 집단 내 역할의 분포, 구성원들의 공헌도,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정도, 향후 참여정도 등에 관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세 번째로는 개방성, 민주성, 조직화 수준, 구성원 간 친밀도 등 집단내 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회원들의 가입경로와 연고주의적 특성: 현재의 집단에 가입하게 된 경로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나 선후배의 권유에 의한 경우나, 종교단체나 기존의 소속관계에 의한 경우, 또는 매스컴이나

표 1. 응답자의 특성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모임별 분포			성별 분포		
동창회	58	14.3	남 자	192	47.3
향우회	47	11.6	여 자	196	48.3
상조회	46	11.3	무응답	18	4.4
부녀회	52	12.8	계	406	100.0
평신도회	48	11.8	연령별 분포		
두레마을	45	11.1	10대	4	1.0
한살림모임	44	10.8	20대	69	17.0
공동육아모임	33	8.1	30대	120	29.6
PC 통신	33	8.1	40대	142	35.0
계	406	100.0	50대	46	11.3
			6-70대	25	6.2
			계	406	100.0
교육수준별 분포			직업별 분포		
중졸, 고퇴이하	44	10.8	주부	98	24.1
고졸, 대퇴	136	33.5	경영/관리/자유/전문	89	21.9
전문대졸, 대재	35	8.6	사무관련직	66	16.3
대졸이상	166	40.9	농/임/수산업	31	7.6
무응답	25	6.2	자영업	25	6.2
계	406	100.0	판매/서비스/영업	15	3.7
			생산/운수/단순	12	3.0
개인소득수준별 분포			학생	10	2.5
50만원 미만	74	18.2	무직	5	1.2
50-100만원	61	15.0	기타	25	6.2
100-150만원	59	14.5	무응답	30	7.4
150-200만원	32	7.9	지역별 분포		
200-250만원	17	4.2	서울시	105	25.9
250-300만원	14	3.4	광역시	82	20.2
300만원 이상	86	21.2	지방도시	119	29.3
무응답	63	15.5	각도의 군	85	20.9
계	406	100.0	기타, 무응답	15	3.7
			계	406	100.0

컴퓨터 통신의 홍보에 의한 경우 등 다양하다. 이들 가입경로를 분류하면, 우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기존의 소속집단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기존 관계의 매개 없이 미디어 상의 홍보를 바탕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이다. 기존의 관계를 바탕으로 모임이 형성되거나 회원 가입이 이

루어지는 경우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어떤 다른 단체에의 소속이 현재 모임에의 가입으로 이어지는 유형으로서 설문지의 응답항목 중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 경우와 '종교단체를 통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선후배, 직장동료의 권유로 가입한 경우들로서,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매개로

모임에 연결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웃을 통해 가입한 유형으로서, 이웃관계가 모임의 기반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웃관계도 일종의 연고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성과 자발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우선, 이웃관계는 좁은 범위의 거주지역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이며, 거주지의 이동과 함께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또한, 현대적 생활방식의 성격상, 이웃관계는 거주지역을 공유한다는 조건만으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자의 자발적인 관계형성의지의 발동을 전제로 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해당자의 귀속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혈연·지연관계나, 과거 어느 시점에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점만을 근거로 자발적인 상호작용 없이도 형성될 수 있는 학연관계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며, 따라서 이른바 연고주의적 성격이 일반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현 조사자료는 공동활동모임들의 연고주의적 특성의 정도를 제시하기에는 불충분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의 소속이나 기존의 인간관계가 공동활동모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곧 연고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모임 형성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연고주의적 집단형성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집단형성방식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회적으로 연고주의가 탈피될 수 있는 가능성을 헤아려 볼뿐이다.

표 2에 나타나듯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지배적인 가입경로는 기존 소속집단을 통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이다. 동창회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고(90%), 평신도회도 종교단체(이 경우 교회)에의 소속이 평신도회에의 가입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57%). 단, 평신도회의 경우는 그 모집단인 교회도 일종의 자발적인 공동활동 모임이고, 교회에의 가입 경로에 대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 집단의 형성에 기존 연구가 어느 정도나 작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소속집단 다음으로 지배적으로 나타난 경로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인데, 다른 관계보다는 친구나 선후배, 직장동료 등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향우회의 경우 그 비율이 71%에 이른다. 가족이나 친척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 경우는 두레마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40%).

이웃을 통해 가입하게 된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한살

표 2. 가입경로

단위: %(n)

모임	기존소속집단	기존인간관계	이웃	새로운 관계	기타	계
동창회	89.65	5.17	1.72	3.44	0.00	100.0 (58)
향우회	22.22	71.11	4.44	3.44	0.00	100.0 (45)
상조회	36.95	39.13	10.87	2.22	2.17	100.0 (46)
평신도회	56.52	28.26	4.35	4.35	6.52	100.0 (46)
부녀회	12.00	54.00	28.00	10.00	4.00	100.0 (50)
두레마을	31.11	42.22	2.22	10.87	6.67	100.0 (45)
한살림	2.27	31.82	50.00	17.78	2.27	100.0 (44)
공동육아	0.00	37.51	0.00	53.13	3.13	100.0 (32)
PC통신	15.15	15.15	3.03	24.24	42.42	100.0 (33)
전체	32.84	35.33	12.03	13.54	6.27	100.0 (399)

주. 기존소속집단: 자동가입, 종교단체, 직장 포함

기존인간관계: 가족/친척, 친구, 선후배 포함

새로운 관계: 매스컴/홍보, 자신이 만든 경우 포함

림의 경우 회원의 50%가 이에 해당하여 지역단위 조합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부녀회의 경우는 약 30%가 이웃관계를 바탕으로 모임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부녀회는 지역을 단위로 구성되므로, 이웃관계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데, 이 결과는 그러한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소속이나 인간관계를 매개로 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는 공동육아협동조합과 PC통신 회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PC통신 동호회의 경우 회원들의 %는 컴퓨터 네트워크 외에는 기존 관계의 매개가 전혀 없고,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경우 회원들의 반 이상(53%)이 매스컴의 홍보를 보고 이 집단에 가입하게 되었다. 기존 관계의 바탕이 비교적 약한 또 하나의 집단으로는 부녀회를 들 수 있는데, 여성들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 조사에 포함된 공동활동 모임들은 대체로 기존의 소속이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연고주의적 성향도 다분히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비전형적인 공동활동집단들이 전형적인 공동활동집단보다 연고에 의존하는 경향이 약하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레마을에서 나타나듯, 기존의 인간관계가 상당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참여도: 모임 빈도는 두레마을의 경우 회원의 80%가 주 1회 이상 모인다고 함으로써 가장 자주 모이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PC통신과 평신도회, 공동육아협동조합도 적어도 월 2회 이상 모인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86%, 63%, 53%로서 자주 모이는 편에 속한다. 동창회나, 부녀회, 상조회는 월 1회 정도 모인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향우회는 년 4회 또는 2회 모인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다(72%).

모임 빈도가 반드시 참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활동참여도를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거의 매번 참여'하는 경우를 5점, '꽤 참여' 4점, '보통' 3점,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2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1점으로 환산하여 집단별로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활동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평신도회(4.38점)이며, 부녀회(4.00점)와 공동육아협동조합(3.85점), 향우회(3.85점)도 참여 정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평신도회와 부녀회는 거의 매번 참여한다는 열성적인 회원의 비율이 각각 65%와 51%로 높고, 평신도회의 경우 '거의 매번' 또는 '꽤 참여'한다고 응답하는 회원들의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반면 공동육아협동조합과 향우회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회원이 전혀 없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향우회의 경우 참여도가 낮은 회원이 조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PC통신은 참여 정도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고, 참여 정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동창회와 한살림이다. 한살림의 경우는 응답자간의 편차가 매우 심한데, 소수의 이사들은 자주 모여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 반면, 일반 회원들은 회합이 있다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모임 빈도와 활동참여도를 비교하여 종합해 보면, 모임 빈도도 높고 참여도도 높은 집단으로 평신도회와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부녀회와 향우회는 자주 모이지는 않지만 참여도가 높은 집단으로, 두레마을과 PC통신은 회합은 잦으나 참여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동창회는 모임빈도도 낮고 참여도도 낮은 전형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고, 상조회와 한살림도 회원들 간의 편차가 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런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본 조사에는 집단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활동참여 정도 외에 집단 내에서의 역할, 공헌도, 의견반영

표 3. 임원비율, 활동참여도, 공헌도, 의견반영도, 향후 참여전망과 순위

단위: %, 평균점수

모임	임원비율	활동참여도	공헌도	의견반영도	참여전망
동창회	60.34 ④	3.12	2.74	2.76	3.76
향우회	78.72 ①	3.85 ③	3.32 ④	3.30 ④	4.05 ①
상조회	69.57 ②	3.70 ⑤	3.37 ③	3.58 ①	3.96 ③
평신도회	70.84 ②	4.38 ①	3.52 ①	3.52 ②	3.85 ④
부녀회	57.69 ⑤	4.00 ②	3.46 ②	3.33 ③	3.65
두레마을	33.34	3.64	3.27 ⑤	2.76	3.80 ⑤
한살림	22.73	2.30	2.39	2.37	3.70
공동육아	18.18	3.85 ③	3.15	3.24 ⑤	3.42
PC통신	18.18	3.52	3.00	3.10	3.97 ②
전체	50.49	3.59	3.14	3.10	3.80

주. 원문자는 순위를 나타냄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집단 내에서의 역할이란 일반임원이나 핵심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혹은 평회원으로서 활동하는지를 묻는 항목이다. 핵심 또는 일반 임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향우회(79%)이고, 평신도회(70%), 상조회(70%), 동창회(60%), 부녀회(58%)도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PC통신과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임원의 비율이 18%로 가장 낮으며, 한살림도 임원 비율이 낮은 편이다(22%).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전형적인 유형의 집단들에 비해 비전형적인 집단들은 활동참여도는 떨어지지 않지만 임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표 3 참조).

회원들의 집단에 대한 공헌도가 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여를 ‘아주 많이’ 한다는 경우 5점, ‘꽤 기여’ 4점, ‘보통’ 3점, ‘별로 기여 못함’ 2점, ‘거의 기여 못함’ 1점을 부여하여, 집단별 평균을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역시 평신도회가 3.52점, 그리고 부녀회가 3.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조회, 향우회, 두레마을의 순서로 높은 편이었다. 평신도회의 경우 응답자의 40% 이상이 ‘아주 많이’ 또는 ‘꽤’ 기여한다고 하고 있으며, 부녀회, 상조회, 향우회와 공동육아협동조합도 35~3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신도회와 부녀회는 공동육아협동조합과 더불어 ‘거의

기여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한 명도 없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살림은 공헌도가 평균 2.39점으로 가장 낮게 기록되었고, 동창회가 그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표 3 참조).

회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주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5점, ‘상당히’ 4점, ‘보통’ 3점, ‘별로’ 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각각 2점과 1점으로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상조회와 평신도회가 3.58점과 3.52점으로 의견반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부녀회, 향우회 순으로 높았다. 상조회와 평신도회의 경우 ‘아주 많이’ 또는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49%와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경우 평균 점수는 높지 않으나, 의견이 ‘아주 많이’ 반영된다거나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혀 없어서 오히려 일부 회원의 의견이 편중되게 반영되거나 무시되는 일없이 골고루 반영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의견반영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한살림이고(평균 2.37), 동창회와 두레마을도 낮은 편이다. 동창회의 경우 전체적으로 의견반영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이에 반해 자신의 의견이 ‘아주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회원이 7명(12%)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동육아협동조합과는 대조적으로 소

수 회원의 의사가 편중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3 참조).

앞으로의 집단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59%)의 응답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향우회의 경우 그 비율이 높았다(77%). 집단들 간의 비교를 위해 ‘훨씬 더 활발하게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5점, ‘조금 더’ 4점, ‘현 수준’ 3점, ‘조금 줄이겠다’는 2점, ‘참여 중단 또는 탈퇴’ 1점을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향우회가 평균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PC통신과 상조회가 별 차이 없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신도회도 높은 편이다. PC통신의 경우 현재의 참여수준이 비교적 낮은 데 비해 향후 전망은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두레마을의 경우 비율 상으로는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이 67%로 높았으나, 5명의 회원이 참여중단/탈퇴를 희망하여 평균점수는 낮다.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공동육아협동조합이고, 그 다음은 부녀회이다. 앞서 살펴 본 바 있는 현 참여수준과 비교해 볼 때, 공동육아협동조합과 부녀회는 현 참여수준이 매우 높은 편인 데 비해 향후 전망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경우는 참여를 중단하거나 줄이겠다는 응답자는 전혀 없으며, 다만 대다수의 응답자(61%)들이 참여도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참여가 충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집단의 구조적 특성: 집단내 관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조사는 모임의 개방성, 민주성, 조직화 수준, 공동활동의 활발성, 구성원들 간의 친밀성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5점 척도(1: 정말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5: 전혀 아니다) 상에서 답하도록 하였으며, 관련된 문항이 2개인 경우 평균점수를 제시하기로 한다.

집단의 개방성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많으나, 전형적인 공동활동 집단과 비전형적인 집단 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향우회는 가입과 탈퇴가 가장 쉬운 반면에 공동육아모임과 동창회는 가입과 탈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향우회는 지연을 근거로 한 비자발적 집단이기는 하지만 고향을 떠나서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현실적으로 집단의 경계가 느슨하게 되기 마련이다. 한편, 공동육아모임은 가입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조합원의 수에 상한선이 있으므로 신규회원이 되려면 상당한 대기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동창회는 기존 연고를 근거로 모이는 집단의 전형으로서, 가입과 탈퇴가 개인의 뜻에 따라서 될 수 없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표 5 참조)

대개의 집단들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은 공동육아모임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 상조회, 평신도회, 부녀회도 민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표 4. 집단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요인과 해당문항

요 인	해 당 문 항
개 방 성	이 모임은 가입이 쉽다. 이 모임은 탈퇴가 쉽다.
민 주 성	이 모임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모임은 권한이 한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조직화 수준	이 모임의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을 잘 알고 있다. 이 모임에서 내린 결정사항은 회원들에게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
참 여 성	이 모임은 활동이 활발하다.
친 밀 성	이 모임의 사람들은 서로 친하다.

표 5. 집단 조직적 특성에 대한 집단별 평균치와 표준편차

모 임	개방성	민주성	조직화수준	활발성	친밀성
동 창 회	2.81(1.14)	3.86(.90)	3.52(.76)	3.91(.83)	4.21(.85)
향 우 회	4.92(.29)	3.24(.55)	3.94(.74)	4.23(.90)	4.02(1.01)
상 조 회	3.32(1.06)	4.17(.73)	3.60(1.03)	3.89(1.32)	4.57(.87)
평신도회	3.60(1.29)	4.08(.94)	3.73(.95)	4.20(.81)	4.50(.89)
부 녀 회	3.32(1.19)	4.08(.99)	3.59(1.02)	4.02(1.04)	4.51(.77)
두레마을	3.88(.87)	2.83(1.16)	3.48(.82)	3.78(1.02)	3.80(.84)
한 살 림	3.65(.99)	3.59(.97)	3.55(.93)	3.31(1.04)	3.86(.95)
공동육아	2.79(.85)	4.41(.67)	3.74(.88)	4.09(.80)	4.21(.70)
PC통신	3.74(.87)	3.97(.80)	3.83(.69)	4.73(.52)	4.64(.55)
전 체	3.55(1.20)	3.79(.99)	3.65(.88)	4.00(1.00)	4.26(.88)

주. 점수는 5점 척도이며 값이 클수록 그렇다는 것임.

다. 전형적/비전형적 조직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두레마을의 경우 가장 비민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화 수준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다.

모임의 활발 수준에 있어서는 역시 젊은 층으로 이루어진 집단인 PC통신모임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항상 접근가능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모임에 참여하는 점도 활동성을 높이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살림의 평회원들이 활동하는 방법은 이웃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소비조합형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활동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친밀도는 전체 요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PC통신, 부녀회, 상조회 그리고 평신도회의 회원들이 서로 아주 친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살림의 회원들은 서로 대면할 기회가 별로 없는 조직과 활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친밀도는 낮다. 두레마을의 경우 긴밀한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도가 낮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 집단이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방향 설정을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활동 내용

가입동기: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로 하여금 집단가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 두 가지를 12개의 항목 중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집단에의 가입 동기를 재분류하면, 첫째, 인간관계를 넓히거나 소속감을 얻기 위해 참여한 경우 등 사회적 동기와, 둘째,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참여적 동기, 셋째, 자신의 발전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동기,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경제적인 도움, 가정 및 직장생활에의 도움, 정보, 취미생활이나 소일거리 마련 등을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동기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자기발전 동기, 실질적 문제해결 동기, 사회참여적 동기의 순서라 할 수 있다(표 6 참조).

집단에 따라 가입시 회원들이 기대하던 바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집단별로 회원들 간에 어떠한 동기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인간관계 또는 소속의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동창회(인간관계 71%, 소속감 43%), 향우회(인간관계 82%), PC통신(인간관계 82%), 부녀회(인간관계 73%), 상조회(인간관계 6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32%)의 응답

표 6. 가입동기 (두 가지 선택)

단위: %

모임	사회적 동기		자기 발전 동기	실 질 적 문 제 해 결 동 기					사회참여적 동기			기 타
	인간 관계 넓힘	소속감		가정 생활 도움	경제적 도움	직장 생활 도움	정보	취미 생활	소일 거리	봉사 활동	사회 발전 기여	
동 창 회	70.69	43.10	27.59	1.72	.00	3.45	10.34	12.07	3.45	5.17	8.62	3.45
향 우 회	82.22	22.22	28.89	.00	.00	2.22	11.11	11.11	2.22	8.89	20.00	.00
상 조 회	63.04	8.70	6.52	21.74	6.52	8.70	13.04	8.70	.00	19.57	19.57	2.17
평신도회	40.43	4.26	55.32	4.26	.00	.00	2.13	2.13	.00	55.32	6.38	6.38
부 녀 회	72.55	1.96	33.33	5.88	3.92	9.80	7.84	19.61	1.96	17.65	3.92	3.92
두레마을	15.91	13.64	61.36	13.64	13.64	2.27	2.27	.00	2.27	15.91	11.36	22.73
한 살 림	11.63	2.33	20.93	65.12	.00	.00	25.58	4.65	.00	4.65	37.21	16.28
공동육아	18.18	3.03	9.09	72.73	6.06	21.21	3.03	3.03	.00	.00	24.24	18.18
PC통신	81.82	6.06	36.93	.00	.00	6.06	21.21	21.21	.00	.00	.00	3.03
전 체	52.00	13.00	31.50	18.50	3.25	5.50	10.50	9.25	1.25	15.00	14.25	8.00

자들이 집단에 가입한 가장 중요한 동기 두 가지 중 하나로 자신의 발전을 꼽았지만, 자기발전 동기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두레마을로서, 61%의 응답자가 이 항목을 선택하였다. 평신도회의 경우도 상당한 비율의 회원이 자기발전이 가입동기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55%),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육아협동조합과 한살림의 경우 실질적인 문제해결, 즉, 가정생활에의 도움을 기대하였다는 응답자가 각각 73%와 65%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중 경제나 직장 생활에의 도움, 정보나 취미공유를 기대하였다는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그리 많지 않으나, 그러한 기대를 가졌던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는 공동육아협동조합(직장생활에 도움), 두레마을(경제적 도움), 한살림(정보), PC통신(취미 공유,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활동 내용: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집단에서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활동이나 사업이 무엇인지 8개 항목 중에서 2가지를 고르도록 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문항은 공동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주관적인 성격규정 또는 의미부여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가입동기를 분류한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8개 항목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사교 및 인간관계 증진 활동, 둘째, 정신적 가치실현을 도모하는 활동, 셋째, ‘회원의 복지 및 편의 도모’, ‘정보교환’, ‘교양 증진 및 취미활동’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활동 유형으로서 회원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 활동,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표 7의 조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모임 활동이 사교나 인간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회원의 복지나 편의 도모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집단별로 높은 응답율을 차지하는 활동들을 살펴보면, PC통신, 동창회, 상조회, 부녀회는 사교 및 인간관계 증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PC통신 91%, 동창회 83%, 상조회 69%, 부녀회 62%). PC통신은 정보교환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49%), 동창회와 상조회는 회원의 복지와 편의를 도모하는 활동(동창회 45%, 상조회 33%)을, 부녀회는 교양/취미활동(47%)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활동은 주로 회원의 복지/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지만(66%), 회원간의 사교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34%),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운영을 사회운동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의미 부여하는 회원들도 상당수 있다는 점(31%)이

표 7. 주요활동 내용 (두 가지 선택)

단위: %

모임	사고 및 인간관계	정신적 가치실현	실질적 문제 해결			사회 참여		기타
			복지/편의	정보교환	교양/취미	사회봉사	사회운동	
동창회	82.76	5.17	44.83	31.03	17.24	6.90	3.45	3.45
향우회	56.52	10.87	52.17	.00	6.52	56.52	8.70	6.52
상조회	68.89	17.78	33.33	24.44	20.00	20.00	8.89	.00
평신도회	51.06	27.66	25.53	4.26	10.64	59.57	6.38	6.38
부녀회	61.70	12.77	21.28	19.15	46.81	21.28	6.38	6.38
두레마을	36.36	56.82	25.00	.00	4.55	22.73	43.18	9.09
한살림	9.30	25.58	32.56	13.95	4.65	25.58	53.49	20.93
공동육아	34.38	18.75	65.63	9.38	3.13	6.25	31.25	12.50
PC통신	90.91	6.06	3.03	48.48	33.33	3.03	3.03	.00
전체	55.44	20.00	33.92	16.46	16.46	25.57	17.47	7.09

특기할 만하다. 두레마을의 경우 주력하는 활동이 정신적 가치실현인 것으로 나타나지만(57%), 사회운동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거나(43%), 회원간의 인간관계를 중요한 활동으로 인지하는 회원들도 상당수 있다(36%). 평신도회에서 주력하는 활동으로는 사회봉사(60%)와 회원들 간의 인간관계 증진(51%)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꼽히고 있는데, 앞서 가입동기 조사 결과에서 자기발전 동기가 높았던 것에 비하면 정신적 가치실현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28%). 한살림의 경우는 가장 주력하는 활동이 사회운동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3%), 그 다음은 회원들의 복지/편의 도모이었다(33%). 한살림 가입동기로 가정생활에의 도움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사회발전에의 기여는 부수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향우회가 주력하는 활동으로는 사고 및 인간관계(57%), 사회봉사(57%), 회원의 복지 및 편의도모(52%) 등의 활동이 비슷한 수준으로 꼽히고 있는데, 가입동기 조사결과에서 인간관계를 넓히는 일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는 결과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임활동 내용이 회원들이 집단에 가입할 때 기대하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한살림의 경우가 가장 대조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의 분석은 과연 응답자들이 현재의 공동활동과 설립취지의 부합 정도에 대해 어떠한 주관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직접 물어본 결과에 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50%가 '대부분 부합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부합되는 활동이 더 많다'고 하는 17%의 응답자를 합한다면, 부합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에 이른다. '반반' 정도라고 하는 응답자는 22%를 차지하고 있고, 설립취지와 관계없는 활동이 '대부분'이거나 '더 많다'는 응답자는 나머지 12%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부합되는 내용이 '대부분' 또는 '더 많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모임은 공동육아협동조합(97%), 동창회(90%), 한살림(86%), 평신도회(75%)의 순으로 나타난다. 향우회는 부합되는 편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27%로 가장 낮고, 그 대신 '반반'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54%). 설립취지와 관계없는 활동이 '대부분'이거나 '더 많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모임은 부녀회(40%)이고, 두레마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22%).

활동내용의 확대/축소에 대한 희망: 8가지 유형의 모임활동이나 사업을 앞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현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절대다

수의 응답자들이 모든 활동/사업 유형이 확대되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축소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활동/사업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6~7할 정도의 응답자들이 확대를 희망하였고, 2~3할 정도가 현 수준이 적당하다고 하였다(표 8 참조).

모임별로 살펴보면, 두레마을의 경우 활동확대에 대한 희망이 모든 활동 유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회원의 복지/편의(100%), 사교(93%), 정신적 가치실현(93%), 정보교환(91%), 교양증진/취미활동(91%)의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은 모두 9할이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PC통신 회원들이 활동확대 의사를 비교적 높게 나타내었는데, 특히 정보교환(100%)을 비롯하여, 사회봉사(88%), 다른 모임과의 연계(82%), 정신적 가치실현(81%)의 측면에서 그러하였다. 단, 회원들의 복지/편의 도모와 회원간의 사교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49%, 39%). 그밖에 한살림과 공동육아협동조합은 회원의 복지/편의 도모(74%, 77%)나 정보교환 활동(81%, 84%)의 확대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반대로 상조회는 많은 유형의 활동/사업의 축소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20%(46명 중 9명)의 수준을 넘지는 않지만, 축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워낙 낮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특히 사회봉사(20%), 사회운동(17%), 정신적 가치실현(15%)에 대해서 축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데, 사회봉사나 사회운동의 경우 가입동기가 이와 관련된 회원들이 비교적 많이 있었던 사실과 다소 모순되는 양상이라 주목된다. 부녀회도 활동의 축소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이 다소 있는 편이었으며(4명 이내), 이들은 주로 사회운동이나 봉사 등 사회참여적 활동이나, 다른 모임과의 연대, 교양증진/취미활동, 정보교환 활동에 대해 그러한 의견을 나타내었다.

활동의 축소를 원하지는 않지만 현 수준대로의 유지를 희망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모임은 동창회였다. 특히 타 모임과의 연계(53%), 교양증진/취미활동(49%), 사교/인간관계(47%), 정보교환(39%) 등의 활동에 대해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다(전체의 비율은 30%, 32%, 31%, 21%). 이들 중 사교/인간관계는 동창회가 가장 주력하는 활동이고, 또한 가장 지배적인 가입동기와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주목되는데, 이러한 활동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향우회의 경우는 사회봉사(36%)나 사회운동(40%)과

표 8. 활동/사업의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

단위: %

모임	사교 및 인간관계	정신적 가치실현	실질적 문제해결			사회참여		타모임과 연계
			복지/편의	정보교환	교양/취미	사회봉사	사회운동	
동창회	50.9	57.9	56.1	57.9	47.4	66.7	43.9	36.8
향우회	61.4	62.2	57.8	55.6	62.2	60.0	55.6	66.7
상조회	60.9	33.6	50.0	47.8	46.7	52.2	52.2	55.6
평신도회	71.1	75.6	55.6	75.6	57.8	75.0	68.2	64.4
부녀회	44.9	59.2	65.3	66.0	56.0	58.0	50.0	40.0
두레마을	93.3	93.3	100.0	91.1	91.1	82.2	71.1	66.7
한살림	79.1	61.9	73.8	81.4	52.4	69.0	59.5	61.9
공동육아	65.6	61.3	76.7	84.4	43.3	62.5	71.0	68.7
PC통신	54.5	81.8	48.5	100.0	75.8	87.9	75.8	81.8
전체	64.7	64.1	65.0	71.8	59.2	67.7	59.0	58.1

관련된 활동이 현 수준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는데(전체의 비율은 24%, 29%), 이 중 사회봉사는 향우회가 주력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공동활동에 대한 의미지각과 정서심리적 경험

만족도: 표 9에 제시되었듯이, 공동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두레마을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두레마을의 낮은 만족도는 설립취지를 현실화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표 9 참조).

개인적 의미: 모임활동을 통해 어떠한 개인적

표 9. 집단에 대한 만족도

모임	만족도
동창회	4.19(.96)
향우회	4.21(.89)
상조회	4.18(1.06)
평신도회	4.30(.66)
부녀회	4.00(1.07)
두레마을	3.71(1.08)
한살림	4.12(1.02)
공동육아	4.30(.73)
PC통신	4.30(.73)
전체	4.14(.97)

주. 점수는 5점 척도이며 값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음.

의미/가치와 사회적 의미/가치를 경험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24개 진술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표 10에서 보는 것 같은 8개의 요인으로 요약하였다. 표 10은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중 첫 7개의 요인은 개인적 의미와 관련된 항목이고, 마지막 요인만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이다. 모임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활동의 사회적 가치성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른 문항의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1은 각 요인별 평균(표준편차)을 집단별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임의 가장 큰 기능은 정서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사회적 관계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다양한 정보교환과 자신의 내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면에서 공동활동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모임활동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인 도움이나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모임활동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런 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모임활동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보다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모임활동별로 비교해보면, 동창회는 다른 모임에 비해 정서심리적 부담이 가장 적으며, 긍정적

표 10. 공동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개인적 의미 및 사회적 가치에 관한 요인과 해당문항

요인	해당문항
정서심리적 안정	즐겁고 재미있다. 마음이 안정된다.
정서심리적 부담	정신적 부담을 준다. 시간투자를 많이 요구한다. 신경 쓸 일이 많다.
긍정적 사회관계 경험	소외감을 느낀다.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 다른 회원과 갈등이 있다 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생겼다. 사회적 체면에 손상이 된다. 소속감을 느낀다. 사생활이 침해된다.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정보교환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게 한다. 변화에 앞서 가는 데에 도움을 준다. 뭔가 할 일이 있다.
경제적 도움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준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실제문제 해결	(경제적 문제 이외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내적 가치실현	내면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 내 인생목표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실현	사회에 기여한다고 느낀다. 비교육적이다.

사회관계 유지의 기능이 많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한편, 지연을 바탕으로 하는 모임이면서도 실제 생활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향우회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을 주는 동시에 부담도 많이 주며, 긍정적 인간관계 경험의 기능과 정보교환기능을 많이 하는 모임이면서도 또한 실제문제해결에도 상당한 기능을 하는 모임이라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비하면, 비교적 전통적인 모임이면서 실제 생활의 지역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상조회는 경제적 도움의 기능이 다른 모임에 비해 조금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녀회는 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녀회가 특정 지역의 생활기반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든 점에서 예상과는 달리 실질적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공동체인 두레마을은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자신의 내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능이 강한 모임이라는 특징을 볼 수 있고, 같은 종교적 가치를 토대로 하는 평신도회는 정서심리적으로 두레마을에 비해 더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하면서 또한 긍정적 인간관계 경험의 기능을 매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신도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신들의 모임의 사회적

가치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이들의 활동 중에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살림모임은 정서심리적인 면에서 다른 모임에 비해 별 효과를 미치고 있지 않지만 모임의 사회적 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활동을 일종의 환경보호활동이라는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육아모임은 예상했던 대로 실제적인 문제해결이라는 면에서 가장 큰 기능을 하지만, 심리적인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이나 혈연, 학연에 매이지 않은 순수한 친목모임인 PC통신의 직장인 모임은 모든 측면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가치성: 사회적 가치성에 관련된 정서적 경험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특히 평신도회와 한살림의 회원들에게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1 참조).

위의 문항과는 별도로 조직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었다. 5점 척도로 구성된 이 문항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평균도 4.12점으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공동육아모임(4.79), 한살림(4.17), 두레마을(4.58) 회원들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다소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표 11. 공동활동의 개인적 의미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각: 평균(표준편차)

모임	정서심리적 안정	정서심리적 부담	긍정적 사회관계	정보교환	경제적도움	실질적 문제해결	내적 가치실현	사회적 가치실현
동창회	3.98(.81)	3.85(.80)	4.23(.39)	3.22(.74)	2.64(.53)	2.45(1.01)	2.89(.88)	3.79(.66)
향우회	4.67(.65)	2.05(.89)	3.40(.75)	4.08(.54)	2.82(.67)	3.64(1.16)	3.83(.83)	4.00(.69)
상조회	3.89(.90)	3.18(.94)	3.78(.73)	3.40(1.05)	2.83(.83)	2.91(1.23)	3.32(.88)	3.56(1.13)
평신도회	4.39(.71)	3.04(1.21)	4.28(.43)	4.09(.71)	2.71(.76)	2.76(1.43)	3.96(1.08)	4.40(.66)
부녀회	3.80(1.02)	3.37(1.00)	4.01(.54)	3.39(1.00)	2.55(.79)	2.40(1.43)	3.06(1.03)	3.66(.85)
두레마을	3.92(.90)	2.47(.84)	3.60(.78)	3.61(.76)	2.56(1.12)	3.14(1.11)	4.09(.91)	4.09(.72)
한살림모임	3.60(.83)	3.26(1.04)	4.09(.52)	3.58(.80)	2.58(.74)	2.76(1.23)	3.37(1.02)	4.28(.56)
공동육아모임	3.91(.73)	2.18(.66)	4.10(.46)	3.41(.71)	2.03(.77)	3.94(1.09)	3.32(.86)	3.92(.44)
PC통신	4.08(.67)	3.07(.91)	3.99(.58)	3.61(.73)	2.32(.67)	2.61(1.12)	3.18(.92)	3.56(.61)
전체	4.03(.87)	2.99(1.09)	3.96(.64)	3.59(.85)	2.59(.80)	2.91(1.29)	3.43(1.02)	3.92(.78)

주. 각 차원은 5점 척도로 환산한 것이며, 점수가 클수록 경험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표 12. 가정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 공동활동의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 도움/방해 정도

모 임	가정만족도	직장만족도	가정생활 도움/방해 정도	직장생활 도움/방해 정도
동 창 회	4.19 ①	3.82 ①	3.26	3.35
향 우 회	3.43	3.36 ③	3.50	3.39
상 조 회	3.50	3.20	3.63	2.97 ⑧
평신도회	3.76	3.17	3.77 ③	3.46
부 녀 회	3.40	3.12	3.20	3.09 ⑦
두레마을	3.40	3.03	3.71 ④	3.59 ②
한살림모임	3.89 ③	2.71	4.07 ②	2.70 ⑨
공동육아모임	4.06 ②	3.63 ②	4.27 ①	3.72 ①
PC통신	3.72	3.27	3.18	3.20
전 체	3.71	3.32	3.65	3.47

주. 점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음. 점수가 클수록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지 않음. 5점 척도 점수.
원문자는 세로 순위.

공동활동집단에 대해 각각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문항이 있었는데, 이 결과도 사람들이 자신이 참여하는 집단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지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단에서는 봉사모임과 사회운동 모임을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모임활동 내용이 봉사활동이나 사회운동과 별 관계가 없는 동창회, 상조회, 부녀회, PC통신 회원들도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다른 한편, 자신이 속한 집단유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향도 상당히 나타난다. 두레마을, 평신도회, 및 한살림 모임에 속한 회원들은 종교모임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PC통신 모임, 공동육아 모임, 동창회 및 부녀회 회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취미모임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향우회 회원들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순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다고 함으로써 연고주의적 성격이 강한 모임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사회조직과의 관계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항은 공동활동집단에서의 참여가 다른 사회조직과의 관여

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의 문제이다. 특히, 공동활동이 가정이나 직장 등 가장 일상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조직생활과는 상충관계에 있는지, 보완관계에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또한 각기 다른 공동활동을 하는 사람들간에 다양한 사회조직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공동활동의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에 대한 도움/방해 정도: 공동활동과 가정 및 직장이라는 사회조직생활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공동활동이 이러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묻기 전에 우선 각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의 가정 만족도와 직장 만족도를 물었는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정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동창회, 그 다음으로 공동육아모임과 한살림 모임의 회원들이 가정 만족도가 높았다(표 12의 세로 순위 참조). 직장만족도도 역시 동창회 회원들이 가장 높았는데, 동창회가 가정만족도와 직장만족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사실은 동창회 표본이 사회·경제적 지위 면에서 상위 계층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공동활동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대체로 방해보다

표 13. 모임의 절대적 중요도와 가정, 직장, 및 다른 모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모임	절대적 중요도	가정생활에 비해	직장생활에 비해	다른 모임에 비해
동창회	4.05	1.80	2.02	3.44
향우회	4.12	2.84 ④	3.13 ②	3.39
상조회	3.91	2.91 ②	2.46	3.52
평신도회	4.35 ③	2.85 ③	2.53	3.76 ④
부녀회	3.79	2.13	1.97	2.96
두레마을	4.38 ②	3.14 ①	3.56 ①	4.17 ①
한살림모임	4.24 ④	2.21	1.93	3.44
공동육아모임	4.67 ①	2.70 ⑤	2.63 ③	3.91 ②
PC통신	3.94	2.13	2.34	3.88 ③
전체	4.15	2.58	2.72	3.66

주. 점수가 클수록 상대적 중요도가 높음. 5점 척도 점수.

는 도움이 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공동육아모임과 한살림의 경우가 그러하다. PC통신, 부녀회, 동창회의 경우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가장 낮다.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가정생활에 비해 대체로 낮은 편이다. 한살림과 상조회, 부녀회의 경우 방해가 된다는 구성원들이 다소 있는 편이며, 그 외에는 대체로 별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모임의 절대적 중요도와 가정, 직장, 및 다른 모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표 13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임활동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는지와 가정, 직장, 및 다른 모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원문자로 표시된 세로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두레마을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및 다른 어느 모임에 비해서도 상대적 중요성이 가장 높았다. PC통신 모임은 다른 모임에 비한 상대적 중요도는 높았으나 가정생활·직장생활에 비해서는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졌다. 공동육아 모임도 직장생활이나 다른 모임에 비해서는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가정생활에 비해서는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편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여가를 같이 보낼 상대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의존할지를 묻는 문항도 조사에 포함되었다.

응답범주에는 가족, 친척, 이웃, 다양한 유형의 친구나 자발적 조직의 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비록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활동조직의 구성원에게 과연 얼마나 의존하게 될지를 명확히 알려 주지는 않지만,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도움을 청할 상대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예외 없이 가족을 1순위로 꼽는 경향이 나타났다. 동창회, 향우회, 및 PC통신 모임, 향우회 회원들은 그 다음 순위로 친구나 선후배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공동활동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적 도움과는 달리, 정신적 도움을 청하고 싶은 대상으로는 가족과 친구가 거의 비슷하게 선택되고 있다. 특히 향우회, 상조회, 한살림 모임, PC통신, 평신도회, 및 부녀회 회원들은 정신적 도움에 관한 한 가족보다 친구를 우선적으로 찾는 경향을 보인다. 평신도회나 두레마을의 경우는 정신적 도움 뿐 아니라 여가 상대로도 같은 종교단체회원에게 의존한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 두 집단의 경우 공동활동집단에 대한 의존성이 보다 포괄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요약 및 논의

본 설문조사의 표본이 된 9개 공동활동 모임들

은 연구자들이 다소 임의적으로 수집하게 된 모임들이며, 이들 모임들이 각각의 공동활동 유형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상에서 분석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하여서는 일반화된 결론은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상기 9개 공동활동 모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뿐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자료수집을 위한 면접조사가 병행되었다. 면접조사 결과는 설문조사 결과와 더불어 상호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음을 밝힌다.(면접조사 결과는 이종한 등(1998) 참조)

본 조사 결과가 제시하는 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많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측면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어떻게 모임이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것, 즉 구성원들이 모이게 된 경로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어떠한 목적에서 모임이 만들어졌으며, 모임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셋째는 구성원들이 모임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가정, 직장, 및 다른 공동활동 집단 등 다른 사회조직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첫째, 본 조사에 포함된 대부분의 모임들은 기존의 인간관계가 집단 형성의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다. 동창회나 평신도회로 대표될 수 있듯이 기존 소속집단을 통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나,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선후배, 직장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를 매개로 가입하는 경우는 본 조사결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모임가입 경로가 된다고 여겨진다.

다른 한편, PC통신모임이나 공동육아모임에서처럼 통신이나 매스컴을 통해 형성되는 모임이나 이웃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한살림모임은 기존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전형적인 모임 결성방식으로부터의 탈피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PC통신모임이나 공동육아모임은 기존의 인간관계의 개입이 없이 목적의 공유와 생활조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자의에 의해 모임을 형성하게 된 예이다. 한살림모임의 경우 이웃관계가 모임의 전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웃관계는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관계형성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자발성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비전형적인 공동활동집단의 대표적인 예들이기도 한 이 세 집단에서 연고주의적인 집단형성방식은 확실히 탈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성원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한살림의 경우는 모임활동의 성격상 모임의 활동성이나 구성원간의 친밀성이 낮기는 하지만, PC통신모임의 모임의 활발성과 친밀성이 높게 나타난 집단이며, 공동육아모임의 경우도 회원들간의 친밀성이 특별히 높지는 않지만 모임의 빈도나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서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C통신모임과 공동육아모임은 기존의 인간관계나 타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순전히 목적의 공유와 자의적 선택으로 바탕으로 모임이 결성될 뿐 아니라 구성원들간에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주목되는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모임에서는 인간관계를 넓히거나 소속감을 가지려는 동기가 회원들의 모임 가입의 지배적인 동기이다.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평신도회나 두레마을의 경우는 자기발전의 동기가, 그리고 한살림과 공동육아모임의 경우는 가정생활에의 도움에 대한 기대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관계 확장 및 소속감이나, 자기발전, 가정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해결 등은 모두 개인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조사에 포함된 모든 집단이 일차적으로는 개인적인 욕구충족을 바탕으로 형성

되고 있으며, 사회적 의미지향은 약하거나 부차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가입 당시의 동기를 기준으로 사회적 의미지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평신도회로서,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레마을이나 한살림, 공동육아모임 등은 일종의 대안적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집단으로서 사회적인 의미지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집단에서도 사회적 의미지향은 부차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의미지향은 가입 당시의 의도나 기대와는 별도로 오히려 모임의 활동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향우회의 경우 가입 당시 회원들의 동기와는 달리 사회봉사활동이 모임활동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두레마을, 한살림, 공동육아모임 등에서도 활동의 사회운동적 성격이 모임활동의 과정에서 인식되고 실현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동활동 모임들은 모임의 원래 목적이나 가입동기와 관련 없이 복합적인 욕구의 충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집단은 각기 독특한 동기로 시작되었지만, 원래의 가입동기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이나 활동들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회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집단마다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활동의 내용상의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본 조사에 포함된 모든 모임에서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모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본 조사에 포함된 모임들은 모두 자발적 사회조직들이고, 따라서 모임에 만족하지 않는 회원들은 탈퇴하거나 활동을 중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임활동을 통해 회원들이 얻게 되는 소득은 모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정서심리적인 안정감은 모든 모임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서심리적

안정감이 곧 정서심리적 부담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향우회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향우회 회원들은 정서심리적 안정감의 평균치가 다른 모임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 정서심리적 부담감의 평균치도 가장 높다.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경험도 모든 모임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얻는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적 도움이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얻는 경우는 공동육아모임이나 향우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향우회와 평신도회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심리적인 안정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의 경험이 공동활동 참여자들이 얻는 가장 확실한 소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내적 가치실현의 경우는 두레마을이나 평신도회처럼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모임과 향우회를 제외하고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사회적 가치실현은 상호회와 평신도회처럼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집단과 두레마을, 한살림, 공동육아모임 등 사회운동적 성격을 띤 모임에서 특히 많이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 가치실현은 내면적 가치실현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경험되고 있다. 공동활동을 통해 내면적 가치의 실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반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넷째, 본 조사에 포함된 집단들의 경우, 그 모임의 중요성이 구성원들에게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다른 공동활동모임에 비해서는 높을지언정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능가하는 경우는 두레마을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두레마을은 거주와 생산활동을 공유하는 복합공동체이며 그 자체로서 가정과 직장을 대체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구성원들의 생활에서

지니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레마을을 제외하고는 공동활동모임이 가정이나 직장을 대체할 만큼 중요한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공동활동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방해보다는 도움이 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정도가 가정생활에 비해 대체로 낮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모임활동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한살림과 상조회, 부녀회의 경우 모임활동이 직장생활에 다소 방해가 되는 회원이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대체로 볼 때 모임의 절대적 중요성이 높게 인식될수록 가정이나 직장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으며, 중요성이 낮게 인식될수록 가정이나 직장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활동은 가정이나 직장생활과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정 및 직장생활을 도와주거나, 오히려 만족스러운 가정 및 직장생활을 전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선엽(1993). 연출망과 연고주의. 임희섭 · 박길성 편, **오늘의 한국 사회**. 서울: 나남.
- 김진균(1983).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몇 가지 개념에 관하여. 사회과학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범문사.
- 김혜숙 · 김영진 · 김완석 · 이종한 · 나은영 · 이선이 · 조성을(1997). 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교육부 인문 · 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 과제 연구보고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나은영 · 김혜숙(1997). 한국의 가족 및 혈연 공동 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3-17.
- 이종한(1992). 공동체의식에 관한 개인주의 - 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76-93.
- 이종한(1994).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이종한 · 김혜숙 · 김영진 · 김완석 · 나은영 · 이선이 · 조성을(1998). 공동활동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137-155.
- Gordon, W. C. & Babchuk, N.(1959). A Typology of Voluntary Associ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22-9.
- Sills, D.(1968). Voluntary Associations: Sociological Aspects. In Sills, D.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pp.362-79). 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 Smith, D. H.(1975). Voluntary Action and Voluntary Groups. In A. Inkeles, J. Coleman, & N. Smelser, (e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pp.247-70). Palo Alto, Cal.: Annual Reviews.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Wirth, L.(1964). Urbanism as a Way of Life. In *On Cities and Social Life*. Series of Heritage of Soci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Psycho-Social Outcomes of the Participation in Group Activities in Korea: A Survey Analysis

Suni Lee¹, Eun-Yeong Na², Youngjin Kim³, Wan-Suk Gim³,
Hai-Sook Kim³, Jonghan Yi⁴ and Sung-Eul Cho⁵

¹ Department of Sociology, Ajou University

²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³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⁴ Department of Psychology, Taegu University

⁵ Department of History, Ajou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periences of the people participating in voluntary group activities. A standardiz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members of 9 different voluntary groups. Included among the groups selected for the survey are an alumni association of a single class members, an old-hometown fellowship association, a church fellowship group, a rural coop, and a neighborhood women's association which are the more typical types of voluntary groups in Korea. The rest includes more atypical and novel types: a religion-based commune, an environment protection group, a child-care coop, and a computer-mediated society. The number of respondents ranges between 33 and 58 per group, totalling 406 respondents. The course through which members joined the group,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group activities, the nature of group activities, subjective/emotional experiences from the group activities, the perception of the social values of the group activities,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interpersonal relations within the group, and membership activities in other groups are examined by making comparisons among different groups. Some of the general findings are as follows: the tendency to rely on *yonko* (the interpersonal ties based on sharing the same personal background, such as the blood relation, the hometown, or the school attended) in the joining of voluntary groups are weaker among the atypical groups; people generally participate in group activities with a stronger individual-value orientation than a social-value orientation; the most important individual outcome of voluntary group participation is socio-emotional rather than practical in nature unless the group has been established to serve specific practical purposes; and, satisfactory family and occupational lives are generally the prerequisite of voluntary group participation.